

유동성 장세 끝?… 삼성 등 ‘실적장세’ 코스피 끌어 올린다

재정·통화완화로 실적 개선 기대
코스피 실적 전망치 3개월새 19%↑
삼성전자 호실적, 이익개선 기대 접수
외인 1.5조 순매수, 유가증권 집중유입
증권가 목표 상향… 4600~6000 제시

주식의 향방을 기를 키워드로 실적이 떠올랐다. 유동성의 힘과 실적이 합쳐질 경우 코스피 6000도 거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각국이 재정과 통화의 수도꼭지를 열면서 흘러넘친 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 이는 기업 실적을 끌어올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실적 장세에 불을 붙인 것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22.71%, 영업이익은 무려 208.17% 증가했다. 한때 ‘4만 전자’까지 내려갔던 주가는 최근 14만원을 돌파하며 급등하고 있다.

실적 기대감은 전체 상장사로 확산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증권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 종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33.95 포인트(0.75%) 오른 4586.32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사 3곳 이상의 전망치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93개의 지난해 연결 기준 4분기 영업이익 예상액(1월 9일 기준)은 56조5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 47조 2908억원 대비 19.48% 오른 수치다. 상승률은 기계·장비가 62.39%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47.72%), 제조업(25.88%), 증권(17.13%)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전체 실적도 장밋빛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35곳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44.1%나 급증한 430조812억원이

다. 매출 추정치는 전년(3045조9644억원) 대비 8% 오른 3289조4102억원이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원자재 실적 눈높이 상향조정 릴레이가 2026년 코스피 지수 전망 변화의 직접적 이유”라고 강조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이익 전망치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스피 200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이 384조원으로 지난해(280조원)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확정 정책은 기업과 증시에 활

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727조9000억원의 ‘초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과 공공·민간 투자 확대, 수출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경기 회복의 전환 국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증권사들은 앞다퉈 코스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아직이라던 입장을 바꿔 이전 목표가를 5650으로 올려잡은 곳까지 나왔다. 유안타증권은 최악 시나리오에서도 코스피가 4600 선을 넘을 것이라고 봤고, 반도체 실적이 추가로 상향되는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6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다.

◆ 글로벌 큰 손 한국 증시로

탄탄해진 기초체력은 외국인을 불러 모은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한국 상장주식 1조524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730억원을 순매수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149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은 1조6000억원, 미주 4000억원, 아시아는 3000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1조원, 영국이 8000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한국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1326조8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30.8% 수준이다.

국계 증권사 CLSA는 한국 증시 전망 보고서를 내고 “한국 주식시장은 올해도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CLSA는 “외국인 지분율이 35% 수준으로 과거 20년 평균(33%)과 비슷해 여전히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도 안정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 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외환·증권 제도 개선과 시장 기반 시설 확충을 담았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금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돼있다.

4월엔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도 예정되었다. 정부는 한국의 WGBI 편입으로 총 560억 달러(약 81조8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자본시장 정책 탄력… 증권사 실적 기대 ‘쭉’

자본시장 활성화에 투자심리 회복
거래대금 증가,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
주요 5사 영업이익 8조 전망, 3.8%↑
대형사 실적 개선에 IMA·STO도 주목

증권업종의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5곳(미래에셋·삼성·키움·한국투자·NH투자증권등)의 올해 연결 기준 합산 영업이익은 8조798억원이 예상된다. 지난해(추정치 7조 7817억원) 대비 3.83% 늘어난 것이다.

삼성증권의 영업이익은 1조4646억원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비 10.1% 늘어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9.1%), NH투자증권(5.0%), 키움증권(4.7%) 등도 4~9%대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조26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전망이다. 지난해 96.76% 급성장한 기저 효과 때문이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의 실적 기대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등 구조 개선 효과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이 맞물렸다. 투자심리 회복에 따른 증시 훈풍도 힘을 더했다. 지난해 코스피는 75.6% 상승했으며,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높여가고 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거래대금 증가세와 브로커리지 기반 증권업종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국내 증시의 종가가 연고

점 부근에서 강하게 형성됐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이 국내 증권사의 실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증시 활황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주춤했던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살아날 것으로 보여진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거래대금 민감도가 높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등 신사업을 통해 수익의 다각화가 가능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실적 가시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토큰증권(STO)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 관련 성장 동력을 확보한 종목에 대한 선별적 접근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왼쪽부터)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류해일 손님 대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유승운 스톤브릿지벤처스 대표가 8일 THE 센터필드 W에서 열린 ‘하나 THE 발행어음’ 상품 출시 기념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 ‘THE 발행어음’ 선보여

수시형 연 2.4%, 약정형 특판 3.4~3.6%
1200억 한도 판매… 소진 시 조기 종료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국내 산업 생태계 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에 나선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9일 첫 발행어음 상품인 ‘하나 THE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하나증권이 직접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의 어음으로, 약정한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하나 THE 발행어음’은 수시형과 약정형 두 가지로 구성된다. 개인 손님 기준 수시형은 세전 연 2.4%의 금리가 적용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약정형 특판 상품도 판매한다. 특판 상품은 순신규 고객과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개인 손님을 대상으로 하며, 약정 기간에 따라 연 3.4~3.6%의 금리가 적용된다. 발행 한도는 1200억원으로, 한도 소진 시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하나증권은 전일 첫 상품 출시를 기념해 THE 센터필드 W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병선 제

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현장에서 상품 가입 세례모니를 통해 하나증권 발행어음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옮길 예정이다.

행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의 능동적 참여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하나증권의 발행어음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의 선순환을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밀거름이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모험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 기업에는 지분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중견기업에는 회사채 인수와 신용공여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자금 공급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발행어음 비즈니스 개시는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맞춰, 그룹 차원의 모험자본 공급 전략을 증권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허정윤 기자

신한운용, 현대차 핵심그룹주 ETF 담았다

‘SOL 자동차TOP3플러스’
순자산 1200억 돌파, 한달새 300억↑
현대차·모비스·기아 3종목 75% 편입

현대차그룹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전략이 주목을 받자 핵심 그룹주를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신한자산운용은 “현대차그룹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CES 2026을 통해 자동차를 넘어 피지컬(Physical) AI 전문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기아 등 그룹주 전반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주의 강세로 ‘SOL 자동차TOP3플러스’는 최근 순자산 1200억 원을 넘어섰다. 최근 1개월 간 순자산이 3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이 ETF는 현대차(26.48%), 현대모비스(24.77%), 기아(23.93%)에 약 75% 비중으로 투자하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오토에버, HL만도 등 협력사도 함께 담고 있다.

자동차를 넘어 로봇·자율주행·AI 기반의 미래형 제조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현대차 그룹의 전략은 벤류에이션 재평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덩달아 현대차 그룹 핵심 계열사 편입 비중이 높은 ‘SOL 자동차TOP3플러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 시장단과 해외원역장, 부사장 등 최고위 임원 100여 명 이상을 CES 2026에 참석시켰다. 미국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리스’와 사족보행 로봇 ‘스팟(Spot)’의 시연을 진행했다.

신한자산운용 김정현 ETF사업총괄은 “현대차그룹이 로봇·자율주행·AI 기반의 미래형 제조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의지가 그룹 전반의 구조적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